

# 광주 대학병원 전공의 1명 지원... 의료공백 해결 '실패'

### 2024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광주 지역 조선대에 1명 지원 "연내 의료공백 해소 어려울듯"

2024년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마감됐으나 광주지역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 단 한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부터 이어진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복귀 대책을 수차례 제안했던 정부는 이번에도 추가모집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당장 지역 의료 공백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 결과, 총 모집 인원 7645명 가운데 지원자는 104명(1.4%)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지역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는 조선대병원 피부과 레지던트에 단 1명이 지원했다.

전남대병원은 의정 갈등으로 진료 일선을 이탈한 전공의 231명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 하반기 레지던트 28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조선대병원 역시 임용을 포기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00여명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했다. 조선대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인턴 36명과 레지던트 4명 등 4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두 병원 모두 모집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른 뒤 9월부터 수련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서 사실상 신규 인력 충원에 실패하게 됐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하반기 미복귀를 택하며 발생한 지역 내 의료공백이 연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전공의 모집 실패로 올해 안에 의료공백을 해결하기는 힘들어졌다. 현장에서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금 의대생들이 전공의가 되는 2030년이나 정상화되지 않을까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의정 갈등은 병원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대로라면 사

직 전공의가 1년 내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다른 병원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한데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이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달 추가 모집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8월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세 일정은 8월 초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수시전략 상담 지원

### 5~14일 집중상담 주간 현직교사가 대면상담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대비해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집중상담은 현직 교사들이 5~14일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1대1 대면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광주 고교 3학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교밖청소년 등 380여명이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에서 개발·보급한 2025 수시모집 대비 배치 참고자료와 시교육청 자체 진학상담프로그램 '빛고를 진학 올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희망 진로, 관심 전공, 성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시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빛고를 진학 올리고' 프로그램은 최근 3년간 누적된 165만건의 합격·불합격 사

례와 전국 대학 입시 결과가 탑재돼 있어,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진학상담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번 상담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을 통해 모집했다.

시교육청은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전공자율선택제), 첨단학과 증원, 과탐필수기준 폐지 대학 확대,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 2025 대입에 변수가 많아지면서, 각각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학생들이 진학 전문교사를 1대1로 만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변수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28일에는 광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설명회 및 진학상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폭염대비 폭염예방 3대수칙 [물·그늘·휴식]**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폭염대비 캠페인** 광주 남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자율방재단원들이 1일 남구 봉선시장에서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얼음생수 500병을 나눠주며 폭염 대비 행동요령 전파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남구제공**

##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내 주요교차로 개선사업 완료

### 상무지구 일대 3개소

광주시내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사업이 완료돼 교통안전 향상이 기대된다.

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공단)에 따르면 광주 시내 3개 생활권 주요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증진을 위해 시행한 '2024 상반기 3개소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이 최근 완

료됐다.

앞서 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정체 발생 우려가 있는 교차로 선정에 교통약자·신호위반 사고가 많은 지역 및 혼잡도로(교통 혼잡을 경험한 차량 비율)를 고려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의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은 치평동 1201·1207·1224번지 교차로다. 이 곳에는 △신

호체계 개선(교통량 부합 신호시간 재배분·사고 방지 위한 황색 신호시간 연장)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보행안전·편의 증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완료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3개소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http://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